

파도를 위한 전조

바다가 잔잔하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수면 아래는 수천 번의 소용돌이와 수만 번의 물살이 언제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성대한 막을 올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KIMA WEEK 2014의 모습은 수면 아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렁거리는 물결은 앞으로의 파도를 위한 '전조'이지요.
수면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KIMA WEEK 2014는 큰 파도가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Hot Clip

KiMA WEEK FOCUS

국내외 해양레저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주관, BEXCO 오성근 대표이사 인터뷰

BOAT SHOW NOW

싸이가 선택한 요트, 뮤직비디오 ‘대디(Daddy)’ 출연!

—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서 직접 시승의 기회 가져

MARINE LEI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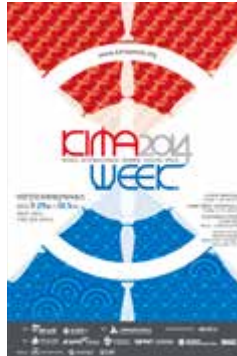
동남권 해양레저지역

— 한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절경, 태종대

KiMA WEEK BRIEF

슬슬 손님을 맞을 준비 해야지!

— KiMA WEEK 2014 축제 준비일정



KIMAWEEK 2014 일정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바다야 놀자’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09:40

2014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일시 : 2014. 7. 1.(화) ~ 9. 30.(화)

장소 : 삼락수상레포츠타운,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개막식(Grand Opening)

일시: 9월30일(화) 11:00

장소 :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 볼룸

국제컨퍼런스

일시: 9월30일(화) 13:30~16:00

장소 :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 볼룸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일시 : 10월2일(목)~5일(일)

장소 : BEXCO 제1전시장 및 수영만요트경기장

광안리 달빛 수영대회

일시 : 10월4일(토) 18:00~22:00

장소 :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어린이 요트대회

일시 : 10월4일(토)~5일(일)

장소 :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부산드래곤보트대회

일시 : 10월6일(월)~12일(일)

장소 : 수영강 APEC 나루공원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일시 : 9월 29일(월)~10월5일(일)

장소 :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Marine BIFF Zone

일시 : 10월2일(목)~11일(토)

장소 : 더베이101

국내외 해양레저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주관, BEXCO 오성근 대표이사 인터뷰



세계의 보트쇼들이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지금, 드디어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 부산에서 KIMA WEEK 2014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 개최된다. 보트쇼의 새로운 지표로 떠오를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의 개최장소, BEXCO의 오성근 대표이사 사장을 만나보았다.

Q. BEXCO에서의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전시특징은?

A.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요·보트 완제품 전시를 특화하여 국내 제조업체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산업전시회의 특징을 살리고, 이를 통해 육상과 해상의 전시 및 참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중에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 2014)’의 다양한 대회와 ‘부산국제영화제(BIFF)’와도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시회의 성과를 높일 것입니다.

Q. 부산의 마이스(MICE)를 대표하는 벅스코가 키마위크 (KIMA WEEK)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A. 벅스코는 ‘부산국제보트산업전’ 개최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는 비즈니스의 장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제의 컨벤션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업계와 학계, 대중 사이에 요·보트를 통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벅스코는 이미 각종 해양 전시회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도시를 대표하는 전시컨벤션 분야에서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 필요한 동력은?

A. 먼저 해양레저, 특히 요트와 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큰 부담 없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겁니다. 또한 앞으로도 해양산업이 부산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동력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연구 및 제품, 요트 및 보트 관련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Q. 끝으로 부산국제보트산업전으로의 초청의 말씀을 전한다면?

A.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을 해양레저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싸이가 선택한 요트, 뮤직비디오 ‘대디(Daddy)’ 출연!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서 직접 시승의 기회 가져



‘강남스타일(2012)’을 시작으로 ‘젠틀맨(2013)’, ‘행오버(2014)’등을 발표한 월드스타 싸이가 새로운 곡 ‘대디(Daddy)’로 팬들에게 다가가려 한다. 싸이는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부산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영화의 전당, 수영만요트경기장 등의 명소를 찾았다. 특히 그가 방문한 수영만요트경기장과 송정마리나와 더베이 101은 빠르고 경쾌한 템포로 여름분위기를 잘 살린 ‘대디(Daddy)’의 뮤직비디오에 적합한 장소였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에는 두 요트, 마이너오프쇼어 익스프레스 28과 세퍼303 모델이 등장하여 싸이의 럭셔리한 여름 분위기를 부각시켰다. 그 중 사계절 가족형 레저보트인 마이너오프쇼어 익스프레스 28은 튼튼하고 세련된 외관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으로 2012년 헬싱키 보트쇼에서 ‘최고의 디자인상’을 수상하였다. 이 두 모델은 오는 10월 2일 목요일부터 개최하는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시원한 바다를 끼고 있는 마리나와 고급스러운 요트까지! 화려한 컴백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싸이의 뮤직비디오에서 과연 멋진 두 요트가 어떻게 등장할지 기대될 것이다. 싸이의 선택을 받은 마이너오프쇼어 익스프레스 28과 세퍼 303을 비롯한 다양한 모델들은 KIMA WEEK 2014 축제 기간 내에 개최하는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서 관람할 수 있다.



태종대는 부산 최남단에 있는 넓은 언덕으로 2005년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제17호로 지정된 곳이다. 해발고도 250m 이하의 구릉 지역으로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기암 절벽, 넓고 푸른 바다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세월과 함께 형성된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태종대는 절벽 바로 앞에 깨끗하고 수심이 깊은 바다가 있어 스쿠버다이빙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같은 바다라도 날마다 그 모습이 다른 것이 태종대 스쿠버다이빙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철썃대는 파도 아래에서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는 수중생물들의 모습을 태종대에서 감상하기 바란다.



■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스쿠버다이빙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500명이 넘는 인파가 찾아온다.

다이빙 활동을 하기 위해선 여러 장비가 필수이기 때문에 근처 9곳의 다이빙 샵에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태종대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연령층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구성원도 개인, 연인, 가족, 단체 단위로 넓어지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태종대 씨킹스쿠버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니아층의 높은 사랑을 받고 있다.



■ Check Point

☞ 감지해변 자갈마당

- 자갈로 이루어진 태종대 감지해변은 절영 해안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상쾌한 바람을 느끼면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일명 '자갈마당'이라고 하는 조개구이 포장마차촌이 있는데 갯 잡은 싱싱한 해산물들을 연탄불에 구워 먹을 수 있다. 단, 카드 결제는 되지 않는다.



☞ 다누비 열차

- 다누비 열차는 태종대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는 의미를 지닌 순우리말에서 착안하여 "다누비"로 지어졌다. 이 열차는 태종대 입구에서 시작하여 5개소의 정류장을 도는데, 광장 → 태원자갈마당 → 구명사 → 전망대 → 영도등대 → 태종사 → 광장입구 코스이며 소요 시간은 약 20여 분이다. 요금은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600원만 지급하면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하면서 태종대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 2014) 축제날이 다가올수록 KIMA WEEK 사무국은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다. 특히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KIMA WEEK 2014의 대·내외적인 홍보 및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제에 활기를 더해 줄 관람객들의 초청은 축제 준비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KIMA WEEK 2014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비롯하여 국제컨퍼런스, 부산국제보트산업전 개막식 및 만찬 등 대외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초청 준비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KIMA WEEK 2014는 모든 초청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바이어와 일반인 관람객으로 구분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KIMA WEEK 2014 관계자들의 활발한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다. 12일에는 매거진 KIMA plus 특집으로 선상좌담회가 개최되어 KIMA WEEK 2014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 오는 16일에는 키마위크 점검회의를 열어 완벽한 축제 진행을 위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KIMA WEEK 2014를 즐길 수 있도록 대외 홍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IMA WEEK 2014 축제를 알리는 홍보 Spot이 전국 MBC TV와 KTX 내 LED에서 방송 중이며, KIMA WEEK 2014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imawee2013>)에서는 매일 KIMA WEEK 2014의 행사 진행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한 BEXCO 및 요트경기장, 더베이 101, 광안리레포츠허브 등 KIMA WEEK 2014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주요 장소를 타겟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해양, 문화, 산업을 융합하는 해양레저축제인 만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의 관심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KIMA WEEK 2014. 행사 프로그램, 전시 배치, 홍보까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KIMA WEEK 사무국은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다.

KIMA WEEK 2014는 행사를 즐기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최근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면 komalnet@naver.com로 수신을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뉴스레터’를 더 이상 구독하고 싶지 않거나

수신 메일을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komalnet@naver.com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KIMA WEEK 2014 사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 TEL : 82.51.760.1143 FAX : 82.51.760.1134

Copyright (c) 2014 KIMA WEEK 2013. All Rights Reserved